당신을 위한 가게 대본

에피소드 **3** 어머니 지구

S#11 상점 안

상점 주인이 책상 위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다. 그 순간 들려오는 문 열림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린다. 지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. 지구는 못 본새 더 수척해졌고 흰머리도 늘었다. 지구는 환자복을 입고 머리도 덜 정돈된 채 입장한다. 상점주인은 지구를 이미 여러 번 보았기에, 낯을 가리지 않는다.

상점주인　　또 오셨네요.

지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받는다. 지구는 알아서 자리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벗으며 입을 뗀다.

지구　　요새 공기가 안 좋아서.

상점 주인은 이미 지구가 왜 왔는지 안다는 듯, 짧은 한숨을 내쉬며 지구를 본다.

상점주인　　(걱정하는 말투로) 수명을 늘려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
지구　　그 얘기는 저번에 자식놈에게도 했어.

지구는 반짝거리는 가루를 사부작거리며 약을 제조하기 시작한다. 상점주인은 약절구를 천천히 찧고 있고, 그 앞으로 지구가 차분히 기다린다.

상점주인　　(안타까워하며) 손님은 이게 필요한게 아닌데 말이죠.
지구　　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의 반... 반의 반만큼이라도 나를 도로 사랑해준다면.
상점주인　　그러게요.
지구　　한 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하면 좋겠는데... (찰나에 표정에 생각이 스친다.) 이번이라고 뭐가
　　다르겠냐만은.
상점주인　　...저라고 왜 모르겠어요.

상점주인은 지구의 느슨한 옷소매을 살짝 들어올린다. 팔 군데 군데 멍이 들어있다. 상점주인은 화가 난건지,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건지, 어이없다는 듯 입이 살짝 씰룩댄다.

상점주인　　이렇게 어머니를 다루는 자식이 어딨답니까.

그러고 보니 지구의 목, 손 등 성한 곳이 거의 없어보인다. 자식에게 학대 받은 정황들이 클로즈업 된다.

지구　　몸이... 뜨거워. 아파.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됐지만...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내 새끼들이

조금 더 잘 살 수만 있다면...
상점주인 정말.. 놀랍도록 자비로우시군요.

지구는 잠시 자신과 자기 자식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.

지구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지.

상점주인은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이해한다. 그는 다 만들어진 약 두알을 두 통에 각각 옮겨 담고는 책상을 스치며 지구에게 건넨다.

상점주인 이제 남은건 이게 전부입니다. 시간이 없군요.
지구 이게 마지막인가?

지구는 약을 가져가고 쓸쓸히 문을 나선다. 상점주인은 방명록에 “지구: 마지막 수명약 가져가심"이라고 쓴다.

상점주인 자식 분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할 텐데.

지구의 독백에 화면의 전환 없이 지구는 고개를 살짝 돌려 카메라를, 시청자를 살짝 바라본다.